**<자기소개서>**

**1. 평가역량 = 팀워크지향 ( 한글 1500자 이내 )**

**다른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동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소원을 말해봐>

Make A Wish 라는 난치병과 소아암을 겪고 있는 아이들 소원을 이루어 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8팀 아이의 소원은 예쁜 공주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꼭 예쁜 공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시간 사정 때문에 단순히 공주 옷을 입혀주고 파티를 해주자는 팀원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Wish Day 하루만큼은 세상에 어떤 아이보다 예쁜 공주로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생각의 차이가 나는 팀원들을 설득하고 조율하였습니다. 팀원들도 이러한 진실한 마음에 모두 마음을 열었고, 자신을 조금씩 양보하며 저희 팀은 다시 활기차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된 회의와 아이디어를 수집한 결과, 놀이동산의 겨울축제 퍼레이드의 메인 공주인 로리공주로 퍼레이드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놀이동산으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재단의 협조를 얻어 공문도 만들어 보냈고, 놀이동산 홍보팀과 퍼레이드 담당 감독님과의 접촉과 끈질긴 설득 끝에 우리는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준비와 고심 끝에 놀이동산 카퍼레이드의 메인 공주를 할 수 있었고, 아이의 부모님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중에는 웃으셨고, 예쁜 공주로 웃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결국, 50개의 팀 가운데 저희 팀은 10기 Make a wish의 소개 책자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고 훗날 기억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의 영업에서 객과의 신뢰성 확보와 시장 분석 및 관리도 다른 분야 팀과의 약속이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수인으로서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열쇠, 소통>

매학기 있는 실험 설계 프로젝트를 7가지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마다 성격, 과정, 완성품이 모두 다르고 구성원도 매번 바뀌고 한 학기 내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7가지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요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조원 간의 협력 및 대화를 통한 의견 절충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워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더는 진행이 되지 않고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수정과정을 거치고 완성했을 때의 희열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뒤돌아 봤을 때 각자의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결국엔 실패한 결과물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능력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소통이 성공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 전공 지식과 팀웍을 이루는 능력을 바탕으로 저는 이수인으로서의 더 멋진 비상을 꿈꿉니다.

**2. 평가역량 = 자기개발 ( 한글 1500자 이내 )**

**자신의 비전과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팔방 미남>

사람을 중시하고, 그 사람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고, 그 사람의 기질과 능력만으로 선택해주는 이수그룹에 매료되어 저의 미래를 바꾸고 함께 전문인으로 태어나고자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이수 페타시스 영업 직무의 성패는 다방면의 경험과 지식, 원활한 인간관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의 학기마다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동심을 배웠고, 혼자 안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얹혀 가면 안 된다는 책임 의식과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선배에게 물어보고 될 때까지 해보는 근성을 배웠습니다. 최종 발표 시 교수님의 기습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위트와 센스로 대답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을 익혀 왔습니다. 다른 상경계열이나 문과계열의 지원자와는 달리 저는 전자통신공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의 영업직무에서만큼은 전공지식과 전자, 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의 습득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대한 지식으로 바탕으로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방면의 지식을 알아 두기 위해 기초 경제학, 심리학 수업 등도 들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원활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밑거름을 통해 안돼도 될 수 있게 하는 당돌함과 패기, 열정, 책임의식으로 영업 분야 업무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명실상부한 인쇄회로기판 전문 기업입니다. 이러한 명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실망하지 않는 최상의 품질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수 페타시스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을 쌓기 위해 전공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자통신공학과의 특성상 H/W와 S/W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교양과목은 최대한 배제하고 전자회로, 반도체소자 같은 기초 이론과 C언어 같은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공부하였습니다. 전자통신공학과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넓게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전공지식은 저의 밑거름이 되어 효율적으로 이수 페타시스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수 페타시스의 쌀과 같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PCB는 겉보기에 아주 작은 존재지만 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PCB와 같이 작지만, 이수 페타시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쌀과 같은 신입사원이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엄격한 품질관리, 자신이 맡은 공정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진보하는 공정 기술을 가진 새로운 이수 페타시스의 모습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수 페타시스의 핵심기술과 첨단설비를 기반으로 하여, 끊임없이 진보한 기술들을 이용해 만든 최고의 가치의 제품을 사람과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입사 후 3년 동안은 업무생활에 집중하며 업무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해가며 제 분야의 기본적인 역량을 쌓으며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 것입니다. 그 후 10년 차 까지는 각종 프로젝트를 도맡아 대내외적으로 인맥을 넓히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굳혀 갈 것입니다. 입사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뿌리 깊은 이수 페타시스이 되어 있고 싶습니다.